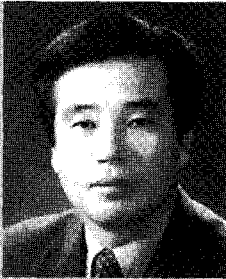


## 본격적인 사업통한 포장 종합회사로의 성장

### 협회 가입 통한 동 업계간 기술교류 적극 참여



김철환  
선영화학(주)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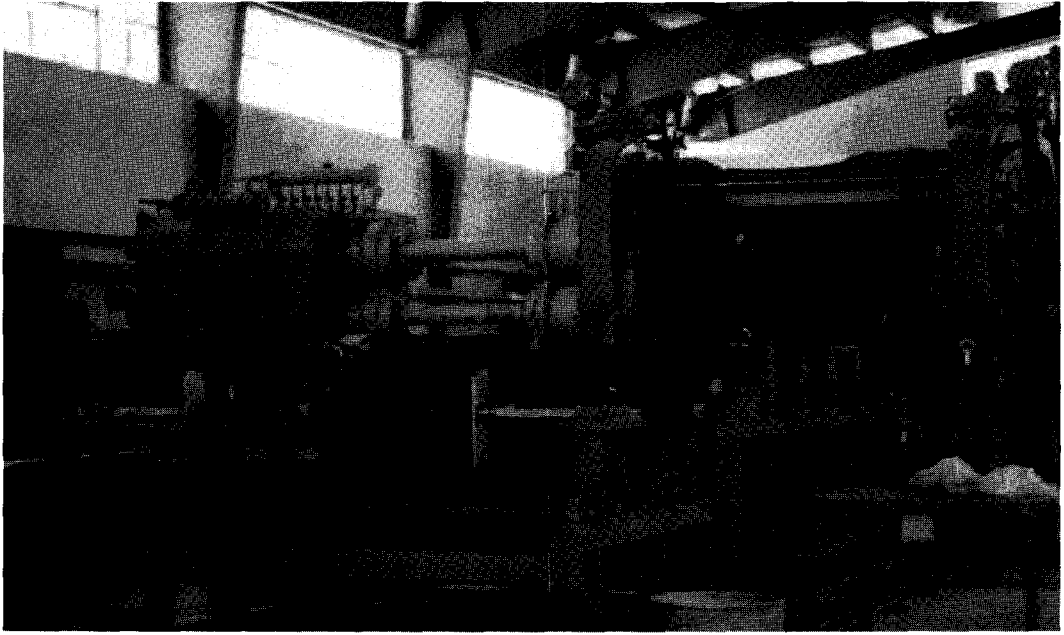
지난 7월 선영화학(주)은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포장 사업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선영화학의 김철환 사장은 “협회 가입을 통해 동 업계간의 기술 교류나 가격 조절, 또는 어려움을 함께 나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함께 WIN-WIN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선영화학은 1985년 설립돼 합성수지필름 및 그라비아 인쇄, 인쇄용롤러, 인쇄제품용 기계 등을 제조해 오고 있다. 1994년에는 안산1공장으로 확장이전하고 1997년 안산2공장에 선영화학(주)지점 설립, 1999년과 2000년에 화성 1, 2공장을 인수와 함께 2003년 1월에는 선영화학(주)와 선영그라비아(주)를 합병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선영화학(주) 공장 전경



▲ 선영화학(주)의 PVC SHEET 생산설비

선영그라비아(주)는 1979년 선영제판공업으로 설립돼 1987년 선영그라비아(주)로 법인전환하고 1992년 경풍실업(주)를 인수 합병하게 된다.

선영화학을 이끌고 있는 김 사장은 "1970년 초 일본에서 제판 기술이 도입될 시 1975년 코리아그라비아에 입사, 약 5년간을 엔지니어로 있으면서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러다 1979년 독립해 선영제판공업을 설립, 1987년 선영그라비아(주)로 상호를 바꾸고 그 입지를 다져나갔다.

2002년에는 의왕공장부지

를 인수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2004년 완공돼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종합회사로의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다.

선영화학은 5개의 제조공장을 가동중이며, 제품 디자인(선영그라비아(주)의 디자인실, 최신식 해리오 설비 확보)부터 최종 PVC DECO SHEET까지의 생산이 자체 라인에서 생산 가능하여 다른 경쟁업체 보다 빠른 디자인 개발과 생산, 신규 제품 개발 등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IMF 때에도 지속적인 매출

신장율을 보여 왔다.

선영화학은 성장을 이룩한 만큼 재투자 통해 99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에 7,000평 규모의 공장부지를 확보 생산설비의 증설 및 작업환경의 개선 등으로 작업성의 극대화 및 신속성과 불량율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써 2002년에는 ISO9001과 2000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김 사장은 하나의 포장재가 완성되려면 거치는 전 공정에서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쇄 공정은 비록 완제품

# Sun Young

을 생산하기 위한 일부분이지 만 다시 말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이기애 더욱더 세심한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선영화학은 창의성, 도전정신, 책임감을 경영이념으로 고객 만족을 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어느 기업이던지 이익을 내고 그 얻은 이익으로 재투자를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 기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자의 마인드에 따라 투자 정도가 다르다.

선영화학의 경우 여느 중소기업과는 달리 설비 증설이라든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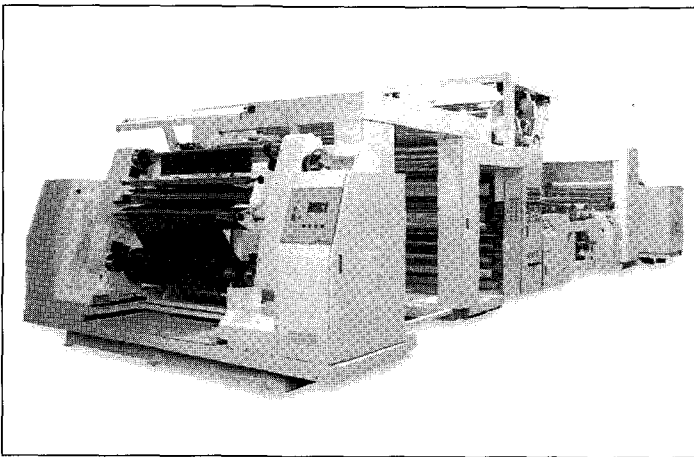
"현재는 동 업계간 기술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업체가 갖고 있는 know-how와 설비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현재 선영화학(주)은 자체 디자인실의 운영 및 GRAVURE PRINT 관련 기계 장치 및 LAMINATING M/C의 설계가 가능할 정도의 기술력을 축적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한 노력과 기술개발을 통하여 세계제일의 회사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현재 제판업계의 많은 물량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매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됐으며 이로 인해 연관 업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국내 제판 업계는 아직은 취약한 분야로 동 업계간의 상호적인 유대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복투자 보다는 실질적인 투자로 인해 각 업체가 전문성



▲ 선영화학(주)의 라미네이팅기

을 갖도록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기업 성장은 물론 국내 제판 업계 또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피력했다.

선영화학은 포장분야 외에도 가구용 마감재인 DECORATIVE PVC SHEET 제품 생산을 시작 후 지금까지 꾸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현재 DECO-TILE SHEET 및 DECORATIVE PAPER, PET FILM PRINTING, FASHION PLASTIC WINDOW, TERRAULIN 에 이르기까지 사업다변화를 통해 전반적인 PVC관련제품을 개발 생산하였다.

가구용 표면 장식재(일반용 시트, 성형용시트, 솔리우드 시트, EDGE용시트, 철판용 시트, 랩핑용시트, 모양지), 철판용 마감재, 타일용바닥재, 장판용 표면인쇄층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로는 한화종합화학(주)(장판바닥재, 타일용바닥재), (주)보루네오가구(가구용시트), 동화기업(주), (주)리바트 등이 있다.

그러다 유사 분야인 포장분



▲ 2004년 완공될 선영화학(주) 아파트형 공장 조감도

야에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선영은 본사 127명, 의왕공장 49명, 천안공장 50명 약 250여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제품 생산에 있어서 외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부 안정을 위한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김 사장은 마지막으로 “동 업계간의 유대관계를 갖고 의

견 교류를 통해 업계 발전이 있을 기대한다”며 “선영화학 또한 제판업계 발전에 한 몫을 하고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투자개발, 고객제일주의, 복지향상, 환경중시를 경영방침으로 하고 올 매출 350억원을 목표로 주력하고 있는 선영화학의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종합회사로의 성장을 기대해 본다. ☎

권해진 기자